

Romanization of Korean Alphabet in Cataloging and Bibliographical Arrangement

한글 로마자화의

서지목록법에 있어서의 문제점

리 재 철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 교수

■ 편집자주 : 본원고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5일까지 개최될 國際圖書館協會聯盟大會 專門會議D(국제사소통—표기와 로마자화)에서 발표될 논문을 미리 게재하는 것임을 밝혀 둔다.

I

한국의 서지가나 목록자들에게 한글의 로마자와/또는 로마자의 한글화문제는 그리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내 독자를 위한 서지목록의 경우, 한국어자료에 대한 저록(著錄)은 그의 올림말(표목)을 한국의 국자(國字)인 한글로 표기하여 그의 자모순으로 배열하며, 서양어자료에 대한 저록은 그 자료에 쓰인 로마자로 직접 기입하여 로마자의 자모순으로 배열하는 이원적인 자모순배열법을 취하고 있어 별로 번자의 기회와 필요성이 없기 때문이다. 즉 한국서지목록계에서는 한글과 로마자가 다같이 배열어의 문자로 병용(並用)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두벌의 순위는 보통 한글의 자모순을 먼저 놓고 로마자의 자모순을 나중에 놓는다.

이제까지 나온 한국어로 쓰인 사전류나 색인류는 의례 한글의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로마자순으로 된것은 하나도 없다. 주로 외국인을 위한 한외사전들도, 1880년에 출간된 <한불자전=韓佛字典>¹⁾을 비롯해서, 모두 올림말의 문자가 한글로 잡히어 그의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는 중외사전이나 일외사전들의 거의 모두가 한자나 일본문자(가나) 대신 로마자로 중국어나 일본어의 올림말이 표기되어 로마자의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일본의 서지목록류 및 도서의 권말색인의 상당수가 가나순차(五十音圖順) 대신 로마자의 자모순으로 배열되어 있는것과 비해 특이점이다.

거의 전부의 한국인들은 그들의 국자인 한글을 세계에 존재한 문자중에서 가장 우수한것으로 믿고 있다.

그것은 한글이 자음과 모음으로 분화된 단음문자이며, 글자의 형상을 조음위치 또는 조음되는 모양을 상형하여 이를 역리론(易理論)에 의하여 번별(辨別)시킨 과학적이며 철학적인 문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에서 한글의 통용범위는 매우 좁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한국의 인명이나 지명과 같은 고유명사를 외국인에게 소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세계에서 가장 통용성이 넓은 로마자로 표기해서 나타낸다.

이러한 한국 고유명사의 로마자표기는 1668년에 공표된 하멜(Hendrik Hamel)의 <난선제주도난파기>(蘭船濟州島難破記)²⁾에 보이지만 그것은 우회적(偶會的) 지명에 대한 청각을 통한바의 웅변적 표기에 그친것이고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한글의 로마자표기는 아니었다. 본격적인 한글의 로마자화의 시도는 1832년 지볼트(Ph. Fr. von Siebold)에 의해 이루어진것을 그 효시로 칠수 있는데, 그후 이제까지 외국인들이 발표한 안만도 근 40종이나 되며³⁾, 한국인의것까지 합치면 약 50종 가량이 되는것으로 어렵간다. 그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쓰이는것은 배쿤-라이샤워식 표기법(McCune-Reischauer System, 이하 배쿤식이라 줄임)과⁴⁾ 문교부식 표기법⁵⁾인것으로 안다. 배쿤식을 일본어의 경우 헵번식 로마자표기법(Hepburn System)이나 중국어의 경우 웨이드-자일식 로마자표기법(Wade-Gile System)에 맞댄다면, 문교부식은 일본의 훈령식(訓令

1) Dictionnaire Coréen-Français =한불자전=韓佛字典 / Société de Missions étrangères de Paris.—Yokohama: C. Levy, Imprimeur-Libraire, 1880.

2) 하멜漂流記 / 李丙巖譯註. —서울: 一潮閣, 檀紀 4287 [1954]. — p.17~62.

3) 한글갈=正音學 / 최현배 지음. —고치판. —서울: 정음사, 4304(1971). — p.653~659.

4) "Romanization of the Korean Language" / by G.M. McCune [and] E.O. Reischauer. — The Transaction of the Korean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29 (1939). — p.1~55.

5) 한글의 로마자표기법 / 문교부. — 서울: 문교부, 1959.

式)이나 중국의 한어병음방안(漢語拼音方案)에 상응시킬수 있지 않을까 한다. 웨이드-자일식이나 헵번식이 영어의 음성학적 기초위에 번자되어 영어사용국민에게 환영 받고 있는것이듯이 한국어의 매륵식도 그러한 처지에 있으며, 한어병음방안이나 훈령식이 중국어나 일본어의 음운적 바탕위에 번자되어 중국정부나 일본정부에 의해 권장되고 있는것이듯이 한국의 문교부식도 그와 비슷한 처경에 있는것이다.

II

한국자료의 서지작성에 있어 한글의 로마자화의 시도는 19세기말엽 쿠랑(Maurice Courant)이 그의 <조선서지>(Bibliographie Coréenne)⁶⁾에서 한국어의 각서지사항 옆에 로마자를 부기하고, 권말에 번자서명색인인 '색인목록=Index des Transcription'을 붙인것이 효시이며, 도서관편목에 있어서의 그것은 1926년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교도서관(京城帝國大學圖書館)에서 한글서명의 울림말을 로마자로 표기한것⁷⁾이 처음이다. 전자는 당시 주한불란서선교사단이 마련한 번자법⁸⁾을 채용하였으며, 후자는 오구라(小倉進平)식 표기법⁹⁾을 약간 수정한 동도서관 독자적 표기법이다. 두식 다같이 음절단위의 번자를 하였으며, 전자는 그의 배열에 있어 음절단위로 배열을 하였으며, 후자는 음절간에 하이픈을 쳐서 다른 외국어자료와 함께 자모단위의 배열을 한것이 특색이다.

현재, 전제 한국도서관중에서 한국어자료를 로마자순으로 배열하고 있는 도서관은 유독 국립서울대학교도서관인데, 동도서관은 문교부식표기법에 따라 한국어의 울림말을 번자하고 있다. 한국의 민간에서 출간되는 영어출판물은 한국어의 고유명사표기에 있어 문교부식보다는 오히려 매륵식을 더 많이 채용하고 있다. 심지어 준국정교과서적인 중학교 영어교본 <미들스쿨 잉글리시> (Middle School English)에도 한국의 인명 지명등이 매륵식에 의해 표기되어 있음을 보는것이다. 한국자료의 영어서목으로는, 한국내의것으로, 고려대학교야세아문체연구소에서 편간한 <한국학논저서지> (Bibliography of Korean Studies)인데 그 역시 한글의 로마자표기에 매륵식을 채용하고 있다. 한편, 한국내의 각 역, 도로변, 관광지의 표지판에 쓰인 로마자 지명·명소명등은 모두가 문교부식에 의한것이다.

III

번자방법의 원리면에서 문교부식과 매륵식간의 큰차이는 다음과 같이 들수 있다.

(1) 문교부식은 한국어의 음운론에 입각하여 형태음소적 번자(morphophonemic transcription) 즉 1대1의 축자적 번자를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약간의 예외규칙인 '허용사항'이 있긴 하지만-반하여, 문교부식은 영어의 음운론에 입각하여 영어사용국민입장에서의 음소적 표기(phonemic transcription) 즉 결과적으로 음성적 번자(phonetic transcription)를 한다. 즉 문교부식에서는 한문자가 갖는 음의 변이(allophone)나 자음배합에서 오는 음의 동화현상에 관계 없이 언제나 1대1의 번자를 하지만, 매륵식에서는 그 음성적 변이 또는 동화현상을 인정하여 한글의 철자와는 관계없이 발음이 변이한대로 표기한다.

예 :

	문교부식	매륵식
강도	gangdo	kangdo
도강	dogang	togang
사진	sajin	sajin
웃	os	ot
웃만	osman	onman
독립	dogrib	tongnip
법문	beobmun	pōmmun
문법	munbeob	munbōp(또는 munppop)
학문	hagmun	hangmun
항문	hangmun	hangmun

(2) 문교부식은 로마자외의 부호를 사용하지 않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데, 매륵식은 아포스트로피(')나 " "와 같은 부호를 사용한다.

예 :

	문교부식	매륵식
특파원	teugpaweon	t'ŭkp'awon
어른	eoreun	ŏrŭn

한글은 순전한 음성문자가 아니라 음소적 단음문자이다. 한국어의 현행 철자법은 음성주의가 아니고 형태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형태주의에 입각한 표기를 매륵식과 같이 음성주의로 번자할것 같으면, 상기에에서 보듯이, 두가지 이상의 로마자로 번자되는수가 있

6) Bibliographie Coréen: tableau littéraire de la Corée .../ par Maurice Courant.— Paris: Ernest Leroux, 1894~97. — 3v.

7) 和漢書名目錄/京城帝國大學附屬圖書館編.— 京城:京城帝國圖書館, 1931.— v.1, p.ii "朝鮮語로-마字表記法"

8) Grammaire Coréene / Les Missionnaires de Corée.— [s. l.], 1882.

9) "諺文의 로마字表記法"/小倉進平.—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小田先生頌壽記念會.— 京城:大阪屋號書店, 昭和 9 [1934]. — p.85~141.

다. 더구나 단어구분(띄어쓰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번자의 결과가 아래와 같이 다양해진다.

예 :

	<u>매쿨식</u>	<u>문교부식</u>
경기도	kyōnggi to	gyeonggi do
경기도	kyōnggido	gyeonggido
해무기	haek mugi	haeg mugi
해무기	haengmugi	haegmugi
독립운동	tongnip undong	dogrib undong
독립운동	tongnibundong	dogribundong
국어교육의 원리	kugō kyoyuk ui wollī	gugeo gyoyug eui weonri
국어교육의 원리	kugōgyoyuk ui wollī	gugeogyoyug eui weonri
국어교육의 원리	kugōgyoyugui wollī	gugeogyoyugeui weonri

한국어의 단어구분(띄어쓰기)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현행 정서법의 규범인 <한글맞춤법통일안> (1933년 제정, 1946년 개정)¹⁰⁾은 띄어쓰기에 관한 규정문에 해석상 많은 모호성이 있으며, 일반인에 의해 별로 준수되고 있지 아니하다. 동규범에 의하면 단어는 최소한의 단어단위로 띄어쓰게 되어 있어, ‘경기도’, ‘해무기’와 같이 적게 띄어 있으나, 일반인들은 흔히 이를 ‘경기도’, ‘해무기’와 같이 붙여쓰는 수가 더 많다.

문교부식에 의한 표기는 단어구분을 달리함에 따른 변이가 없지만, 매쿨식에 의한 그것은, 상기 예에서 보듯이 그 변이가 적지 않다. 어쨌든 어느 식에 의한 번지이든간에 현재와 같이 띄어쓰기법이 일정하게 굳어지지 않은 상황아래서 한국어의 단어단위에 의한 배열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 못된다. 대신 음절단위의 번자를하여 한국사전류가 취하고 있는 배열법과 같이 음절단위의 배열을 하는 것이 검색과의 합일성을 위해 좋다고 본다. 음절단위의 번자를 할 것 같으면 매쿨식에 따른다 하더라도 단어단위의 번자와 같은 표기의 변이를 막을 수 있으며, 그의 한글형의 복원을 대부분 가능케 할 것이다.

N

한글의 철자는 원래 자모를 단어단위로 모아쓰지 아니하고 음절단위로 모아쓰게 되어 있다. 모아쓴 음절철은 마치 한자 또는 음절문자와 비슷한 형태를 이루며, 두음절이상의 단어는 두개이상의 음절묶음을 붙여 적어 좀더 큰 덩어리의 단어묶음을 형성하고, 귀절이나

문장은 이들 단어묶음들 사이를 한칸씩 띄어가며 적는다.

한글로 쓰여진 한국어 문장은 15세기 중엽의 한글창제시부터 19세기말의 개화기까지 한문(漢文)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를 하지 아니하고 음절철의 붙여쓰기를 하였다.

한글 전용문에 있어 단어별의 띄어쓰기를 시도한 문장은 1896년에 창간된 <독립신문>에서 처음 보며, 국한문혼용문의 경우는 1908년 11월에 발간된 잡지 <소년=少年> 창간호에 실린 최남선(崔南善)의 “해에서 소년에게=海에서 少年에게”란 시에서 처음 본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띄어쓰기법이 급격히 보급된 것은 1945년 이후의 일이며, 아직도 인명, 단체명 등의 고유명사와 도서의 표제지나 판권지에 기재된 서지정보는 띄어쓴 예보다 붙여쓴 예를 더 많이 보는 실정이다.

서양어자료의 편목에서 서명기술(또는 서명기입)의 단어구분을 자료에 쓰인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독자가 얻어가지고 있는 서지정보 그대로에 의해 목록에서 검색이 가능케 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 이 원리내지 방식을 한국어자료의 편목에 적용한다면, 사람에게 따라 달리 단어구분의 기준을 삼는 단어단위주의는 검색의 능률성과 정확성에 비추어 채택할 만한 방법이 못됨을 알 것이다.

서양의 서지목록제에서 러시아문자를 로마자로 번자할 때 그의 단어구분은 러시아어의 그것에 맞추어 한다. 이 방식을 필자는, 한글의 로마자표기의 띄어쓰기에도 적용할 것을 건의한다. 즉 한국어의 로마자철자도 한글철자와 같이 먼저 음절단위로 철하고, 다시 이를 하이픈으로 연결하여 단어묶음을 형성하고, 단어묶음과 단어묶음 사이는 한칸 띄어쓰는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 말이다.

예 :

	<u>매쿨식</u>	<u>문교부식</u>
웃만	ot-man	os-man
해무기	haek-mu-ki	haeg-mu-gi
경기도	kyōng-ki-to	gyeong-gi-do
독립운동	tok-rip-un-tong	dog-rib-un-dong
국어교육의 원리	kuk-ō-kyo-yuk-ūi won-ri	gug-eo-gyo-yug-eui weon-ri

V

한국어자료에 대한 올림말의 음절단위의 번자와 배

10) 한글맞춤법통일안/한글학회 지음. — 개정판. — 서울 : 한글학회, 1946.

열에 대한 상기한 필자의 주장은 결코 유다르거나 세로운 것이 아니며 역사적으로 볼때, 오히려 전통적인것에 속한다. 음절단위의 번자를 하게 되면 문교부식이 아닌 매문식마저도 음절의 배합에 따른 음성적 변이(allophone)이나 동화현상을 피할수 있기 때문에, 축자적 번자와 한글원형에로의 복원이 대부분 가능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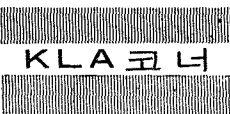
서지기관에서 어떤 번자법을 채택해야 옳은가는, 가급적이면, 그 이용자와 그 로마자표기법과의 친근성내지 익숙도를 고려함에 못지 않게 1대1의 축자적 번자의 가능성 여부, 한글 원형에로의 복원가능성 여부, 철자단위(띄어쓰기)와 검색단위의 합일성 여부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아 결정해야 될것이다. 이러한 평가기준은 앞으로 있을 컴퓨터를 통한 한글의 로마자 자동번자 및 번자된 로마자의 한글 자동복원작업을 감안할 때 더욱 적절하고 효율적인것이 되어줄 것이다.

주(註)외의 주요 참고문헌

國語政策論/金敏洙著. — 서울:高麗大學校出版部, 1973. — p.269~304: 第6章 로마字
“외래어표기법 제정경위”/李秉鎭. — 국제한국연구기관협의회 제2차학술회의(1975. 7. 1~8.) 발표논문.
“韓國語目錄作成上の問題點”/David Hall. — 국제한국연구기관협의회 제2차학술회의 (1975. 7. 1~8.) 제출논문. — 4p.
Cataloging Rules of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and the Library of Congress, Additions and Changes, 1948~1958. — Washington: Library of Congress, 1959. p.47~56: “Manuel of Ramanization, Capitalization, Punctuation, and Word Division for Chinese, Japanese, and Korean.”
“Korean Romanization Problems” /Key P. Yang. — [A Paper presented at] the 2nd Convention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he Organization for Korean Studies. July 1~8, 1975. p.7

「동네무당」

지금은 거의 사라져가고 없지만 시골서 태어난 사람이면 어렸을 때 무당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자란 마을에 대대로 내려오는 단골무당이 있었는데 동네에서는 밀시를 받았다. 굿을 해도 반드시 다른 동네 무당을 데려다가 굿을 했다. 자기 동네에서는 팔시를 받지만 타동에서는 대단한 영험(靈驗·영검)이 있다고 알려져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내가 평소에 보는 이 무당 아줌마는 육도 잘하고 감정이 격하여 남과 잘 싸우는 무식한 여자였다. 그러나 굿할 때에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그 신나게 추는 춤과 가락, 주문과 노래는 저



KLA 코너

절로 신명이 났다. 나는 가끔 이 무당을 회상한다. 내가 졸업한 대학도서관에서만 십수년을 근무하다 보니 나는 어느새 『동네무당』이 된 것이다. 「동네무당」이 동네에서는 의로운 것처럼 나는 가끔 직업적 의로움을 맛보기 때문이다. 무당이 춤출 수 있는 것은 가락이 있고 관중이 있고 그래서 신명이 나기 때문이다. 훌륭한 교수는 강의실에서 신들린 무당 같아야 한다고 한다. 가르침에 열정이 있고 사명감이 있고 따라서 학생들이 경청하기 때문에 어떤 예술의 경지에 이른다는 것이며, 교수와 학생은 지루하고 피곤함을 모르기도 교육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오늘 날 미국식 경영관리 개념이 도입되면서부터 가장 합리적이고 과학적이라는 미명하에 모든 분야

에서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하던 일도 명석 짚아 놓으면 안한다』는 한국인의 지극히 소박한 민족성을 의면하고 있다. 「샤면이즘」이 미신이긴 하지만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샤면이즘」적인 요소를 무시하고서는 어떠한 방식의 경영이나 관리도 효과적일 수 없다,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도서관에서 그럴진데 다른 곳은 말할 것도 없다. 관리자가 할 일은 무당 춤출 때 더 신나게 춤추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반주를 신명나는 가락으로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부하들은 어찌『동네무당』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춤은 추고 싶은데 신나는 가락이 없

고, 마당이 없고, 관중이 없다.

춤추는 사람이 장단도 치고, 마당도 마련하고, 관중을 모이게 하는 일인 삼역(1人3役)의 일을 하다 보니 어딘가 어색하고 힘겨운 상황이 지금의 도서관인이 아닌가. 우리는 조그만 「동네무당」에서 부터 큰 「동네무당」에 이르기 까지 같은 처지에 있다. 「타동무당」만 영검하다고 생각하는 동네사람들이 우리가 봉사해야될 바로 그 사람인 점에서 우리의 의로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다.

춤추고 싶다. 신명나게 춤추고 싶다. 상상의 가락에 맞추어 춤추고, 상상의 관중의 열빠진 모습을 바라보며 어지러히 춤추고 싶다. 어린애처럼 신바람나게 뛰고 싶다. 명석은 깔지 않아도 우리가 뭘 대지는 넓다. 땀발로 뛰게 내버려 두어라!

<崔昌均>